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6년 2월 2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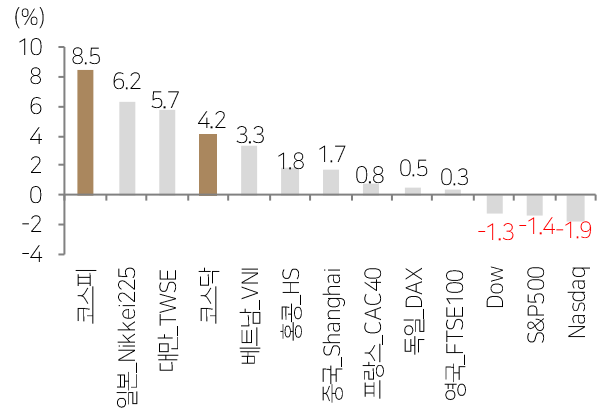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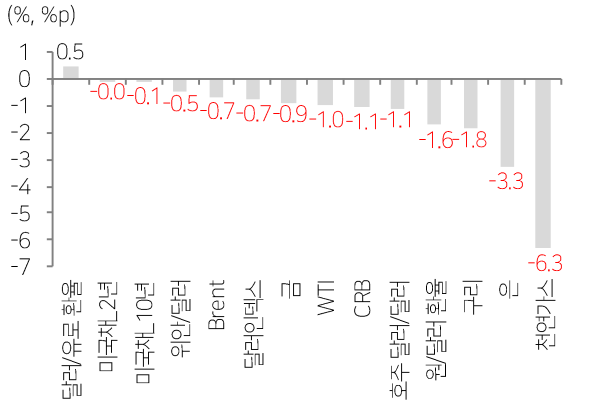
I .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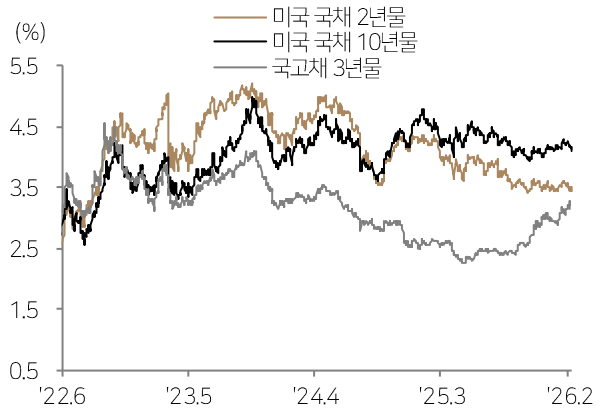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2/6일 대비 2/12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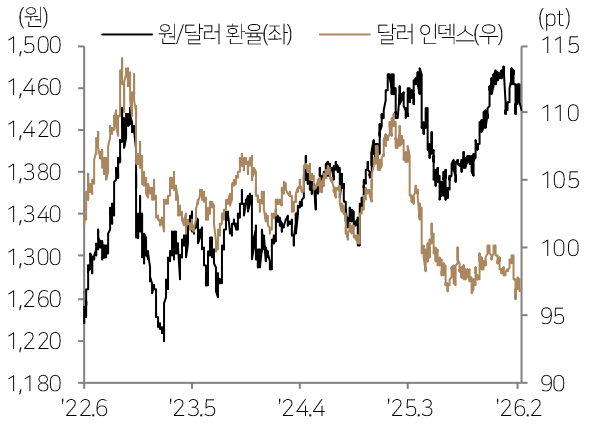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2/6일 대비 2/12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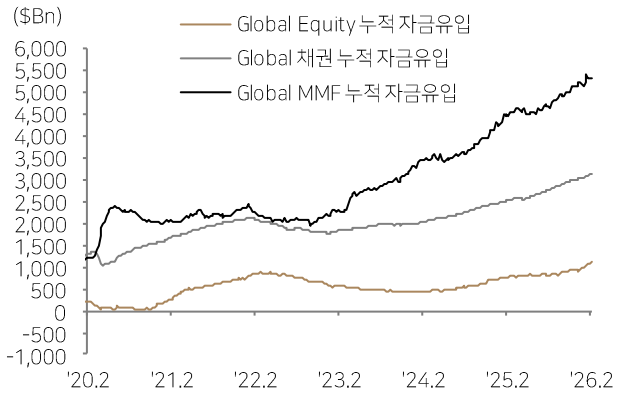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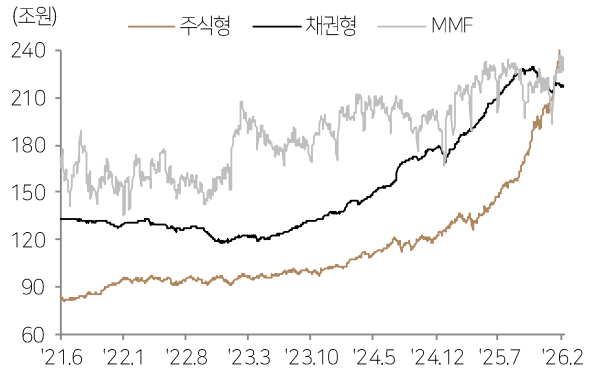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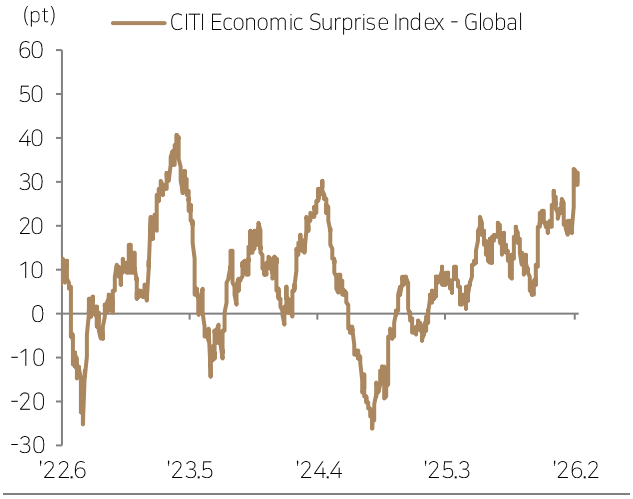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주 중 발표된 1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물가지표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금일 발표될 CPI가 중요해 보이는데, 컨센서스 상으로는 지난 달 2.7%에 비해 낮아진 2.5% 전망 중. 주택가격이나 유가 측면에서 헤드라인을 끌어올릴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일단 연준은 1분기 중 관세 관련 물가 상승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 2.7% 내외의 물가라면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고물가 확인 시 1월 고용지표와 함께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 존재
- 일본 GDP도 살펴볼만한 변수. 실질 성장률의 개선이 확인된다면, 일본 국채 금리 상승 부담은 잔존하겠으나 엔/달러 환율의 안정과 주가 상승에 대한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호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듯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2-16	일본	4분기(잠정) 경제성장률	%qoq	1.6	-2.3
2026-02-17	미국	2월 뉴욕 제조업 PMI	Index	7.4	7.7
2026-02-18	미국	1월 광공업생상	%mom	0.4	0.4
2026-02-19	미국	1월 선행지수	%mom	-	-0.3
2026-02-20	일본	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	2.1
2026-02-20	미국	12월 무역수지	억달러	-558	-568
2026-02-20	미국	1월 미결주택매매	%mom	-	-9.3
2026-02-20	미국	12월 개인소득	%mom	0.4	0.3
2026-02-20	미국	12월 개인소비지수	%mom	0.4	0.5
2026-02-20	미국	12월 근원 PCE 물가지수	%yoy	3.0	2.8
2026-02-20	미국	4분기 1차 경제성장률	%qoq	2.8	4.4
2026-02-20	미국	2월(잠정) 제조업/서비스업 PMI	Index	-/-	52.4/52.7
2026-02-21	미국	2월(최종)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Index	56.9	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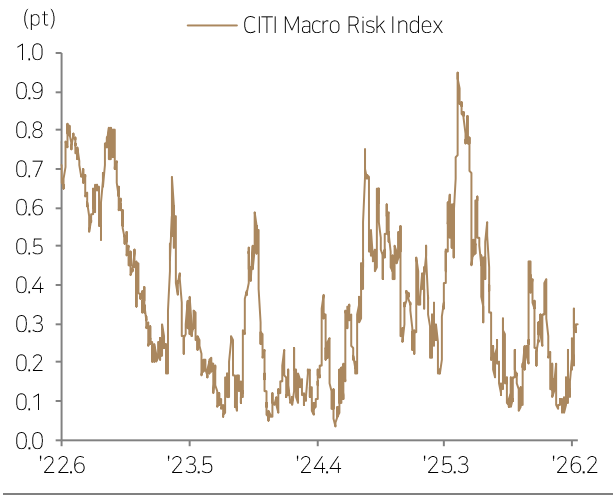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02/16~23	중국	하	춘절	▪ 중국 증시는 춘절을 맞아 2/16~23일 휴장 예정. 중국의 주요 소비 시즌 중 하나인데다 이례적으로 긴 연휴가 진행 ▪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인바운드에 대한 기대가 크지는 않았으나 올해는 한일령 여파로 연휴 기간 한국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인바운드 수혜주들도 반응을 보였던 상황
02/19	미국	상	1 월 FOMC 회의록 공개	▪ 1월 FOMC는 3회 연속 인하 이후 동결을 선언. 그러나 기존에 큰 폭 인하를 지지하고 있던 미란 이사에 이어 정책 측면에서 보다 무게감이 있는 월러 이사까지 25bp 인하 소수 의견에 동참. 당시 정치적인 동인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인하 주장 전환에 대한 근거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듯 ▪ 인터뷰 등을 통해 드러나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은 다소 엇갈리고 있으며,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혼재되어 있는 양상. 주중 발표된 1월 고용지표와 25년 수정치의 방향성도 엇갈린 만큼 연준 주요 인사들의 정책 판단에 대한 주안점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볼 필요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2/09~02/12) 증시 동향	▪ KOSPI(+8.5%), KOSDAQ(+4.2%) 상승. KOSPI는 은행(+14.2%), 통신서비스(+12.9%), 증권(+12.5%)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조선(2.2%), 호텔,레저서비스(3.1%), 소프트웨어(4.2%) 업종 하락. 주초 미국 증시 반등과 금융/증권 업종의 호실적, 젠슨 황의 과잉 투자 우려 일축 발언에 5,300pt선을 회복. 이후 유통법 개정과 특별배당 등 이슈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LG전자·현대차 등 로봇 테마와 전력기기도 동반 강세 연출. 주 후반 마이크론 급등 영향으로 반도체가 다시 강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상회하며 마감 ▪ DOW(-1.3%), NASDAQ(-1.9%), S&P500(-1.4%) 하락. 주초 소프트웨어 업종의 저가 매수세 유입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 이후 소매판매 부진(경기 둔화)과 고용지표 서프라이즈(금리 인하 후퇴)가 엇갈리며 혼조세를 보였으나, 마이크론의 HBM4 양산 발표로 반도체 업종은 강세 연출. 이후 AI가 소프트웨어 업종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재차 부각되며 하락 전환
차주 (02/16~02/20) 증시 전망	▪ 직전일 BLS 데이터가 양방향 해석이 가능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일 CP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관세 등 누적이 의심되는 물가 압력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주택 및 렌트비 그리고 유가 측면에서 급격한 인플레 상승을 우려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 CP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경우 시장은 1월 고용지표까지 소급한 변동성을 보일 우려가 있지만,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음 ▪ 이를 제외하면, 시장 이익관련 변화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유동성 환경 및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부담 역시 아직은 상정하기 어려움. 지수 차원의 우상향 국면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 전략 측면에서 반도체의 비중을 낮출 이유는 없음. Top2 종목의 시장 내 이익 비중이 53% 수준으로 집계되는 반면 시총 비중은 여전히 40% 내외에서 형성. 가격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익 전망치에 대한 주도력도 여전히 독보적. 연휴 이후 중국 양회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연휴를 앞두고 포트폴리오 확장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일단 주도주 집중 전략을 지지하는 요인.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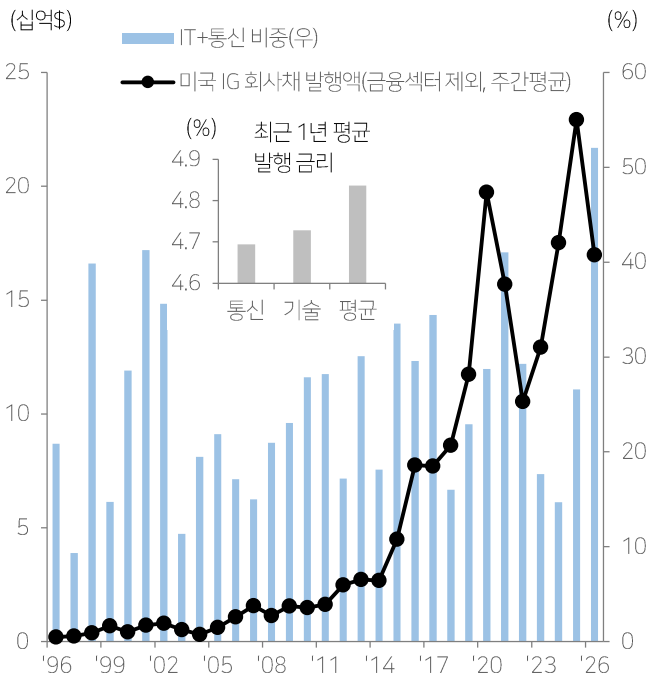
최근 10여년간 구정 연휴 증시 퍼포먼스 및 당시 주요 이벤트 정리

연도	직전 거래일	직후 거래일	KOSPI 수익률	연휴 기간 이슈
15년	2/17	2/23	0.35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진전(2/20)
16년	2/5	2/11	-2.93	도이치뱅크 코코본드 이자 지급 불능 가능성 제기(2/8~9)
17년	1/26	1/31	-0.77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1/27)
18년	2/14	2/19	0.87	CPI 서프라이즈(2/14)로 금리 급등
19년	2/1	2/7	-0.00	연준 금리인상 중단 시사(1/30) 미중 워싱턴 고위급 협상 종료(1/31)
20년	1/23	1/28	-3.09	코로나, 중국 우한 봉쇄(1/23)
21년	2/10	2/15	1.50	비트코인 4.9만달러 돌파(2/14) 바이든 재정/산업정책 기대
22년	1/28	2/3	1.67	인플레, 금리 우려로 1월 급락 후 저가 인식과 빅테크 실적 호조로 반등
23년	1/20	1/25	1.39	중국 코로나 극복, 연준 긴축 완화 기대(WSJ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보도, 1/23)
24년	2/8	2/13	1.12	S&P500 5,000pt 돌파(2/10) 엔비디아 시총 아마존 돌파(2/13)
25년	1/24	1/31	-0.77	딥시크 쇼크(1/27) + 연준 금리 동결(1/29)

Source: 다올투자증권

- 구정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2015년에서 25년까지 구정 연휴 전후의 KOSPI 수익률과 주요이벤트들에 대해 정리해 본 결과
- 이미 익숙하겠지만, 장기간의 연휴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는 없음. 실제 왼쪽 표에 정리한 11번의 사례를 보면 상승 6회, 하락 5회로 거의 50%의 확률이 도출되며, 평균 수익률마저 -0.06%에 불과, 확률적인 의미를 부여할 여지가 없음
- 연휴 기간 중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고,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적 우려가 시장 변동성을 자극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2016년 도이치뱅크 이슈나 2021년의 코로나 발생 등 다른 이벤트의 영향력을 압도할 만큼의 중차대한 이벤트 발생이 아니라면 연휴 기간 중 호/악재의 중첩에 의해 큰 폭의 주가 변동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금일 발표되는 미 CPI 결과가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연휴 기간 동안 급락 및 변곡점 우려가 형성될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인다는 판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AI 투자 관련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발행 물량 집중에도 평균 금리 이하 자금 조달 중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AI 투자는 이제 자체 현금이 아닌 채권 등을 통한 자금 조달과 함께 진행. 지난 연말 해당 이슈는 빅테크 수익성 우려를 자극하는 소재로 작용한 바도 있음
- 좌측 데이터는 미국 국적 투자적격등급 기업들의 연도별 회사채 발행 금액을 합산한 것(26년 시계열이 짧아 주간평균 발행 금액으로 치환, 금융섹터 제외)
- 최근 수년 간 회사채 시장의 발행 금액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AI 투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상정할 수 있는 Tech 와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합산 발행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 전체 발행액의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대규모 자금 조달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함께 볼 부분은 조달 금리가 낮다는 점. 최근 1년 전체 회사채 발행 평균 금리 대비 두 섹터의 평균 발행 금리가 10~15bp 가량 낮게 형성. 발행 물량의 상당한 쏠림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채권 시장에서 AI 투자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이 가능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